제자를 삼아

2017년 5월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그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한국의 혼란했던 시기가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듯합니다. 한국의 변화에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한국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며, 동시에 한 단체의 비전있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1. 네팔의 선거

네팔에도 동일하게 선거철을 맞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네팔의 선거가 오는 일요일(5월 14일)인데 모든 학교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휴교령을 내려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한솔학교는 그래도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발 벗고 나설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 일주일을 휴교하면서 다음 방학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휴가에 들어갔답니다. 네팔에도 올바른 지도자, 건전한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네팔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진정한 일군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새벽기도 시간의 울부짖음

5시에 집을 나서 교회에서 7시까지 새벽기도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 속에서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겠노라고.... 그 동안 세워진 네팔의 지도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에서부터 부으면서 죄와 허물과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을 씻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들의 심령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마음 구석구석을 씻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의 가정과 그들이 돕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의 집을 찾아갑니다. 한솔학교의 교장과 교목과 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 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교사들을 다 호명하고 나서는 학생들 유치원에서부터 10학년까지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과 가족들이 있는 마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을 깨끗케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들의 영혼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장과 교사들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 및 그들의 가정까지 나아가서 마을 전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한솔학교에서의 전체수양회

지난 4월 29일 토요일 한솔학교에서는 많은 사람들로 분주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에서 평생을 제자삼는 사역에 드려졌던 75세 노인이신 오안도 선생님을 모시고 전체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를 삼아왔던 형제 자매들, 기도하고 만나고 친구를 삼아온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솔학교 교사들 가운데서는 교목인 비노드 선생, 회계인 이소리 선생, 영어 교사인 시따 선생, 도서관 사서인 산따 선생, 기숙사 사감이자 네팔어 교사인 드와리까 선생, 유치원교사로 섬기고 있는 서뻐나 선생, 우리학교 졸업생이자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럭챠 선생, 한솔학교 졸업생이며 유치원 교사



그림 1 전체수양회 참석자들

로 섬기고 있는 비뻐나 선생, 한솔학교 졸업생이자 교사였던 스리야(지금은 간호대학에 진학) 및 고학년 학생 중 10학년 또는 11학년 4명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목인 비노드가 마을에서 제자를 삼은 사람들, 한솔 교육센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난더 한국어 교사 부부, 상담으로 섬기는 비백, 회계인 자스민, 재정 책임자인 럴릿따와 그 가족, 번역으로 수고하는 쁘러까스와 그 가족, 교육센터 학생인 비끄럼, 그 외 비즈니스를 하는 덤벌과 그 가족들, 덤벌이 제자를 삼은 사람들 등이 참석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수양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처음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제자로 잘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은 한솔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한신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한솔학교 강당에서의 어린이 예배



그림 2 어린이 예배 참석 학생들

한솔학교 강당에서는 변함없이 토요일 오후가 되면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게임과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는 달란트 시장을 진행합니다. 아마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있는 김영효 선교사와 교목인 비노드 선생이 주도하여 인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와 제 처는 같은 시간에 한솔교육센터에서 한솔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이는 못하지만 달란트 시장에는 집에 묵혀있던 쓸 만한 물건들을 챙겨 와서 달란트 시장에 함께합니다. 이 한솔학교 아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정을 변화시켜나갈 수 있는 첫 사람, 마을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복음의 일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한솔학교 졸업생들과의 성경공부



그림 3 왼쪽에서 세 번째부터 비뻐나, 럭챠, 스리야

한솔학교 강당에서 어린이 예배가 진행이 되는 같은 시간에 한솔교육센터에서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경공부로 잘 준비된 럭챠와 비뻐나는 주 안에서 성장하여 한솔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럭챠는 영어와 과학교사로, 비뻐나는 유치원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마음은 뿌듯합니다. 이들이 한솔학교를 변화시켜 나갈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년 동안 한솔학교 교사로 섬기던 스리야는 전체수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은 간호대학에 진학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솔학교 졸업생들이 성경공부에 성실히 임하여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한솔학교를 통한 변화, 즉 학생들 및 가족들의 변화, 이들이 진학하는 캠퍼스의 변화, 나아가서는 네팔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일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 한솔학교 건축을 위한 준비

한솔학교 건축을 위해서 지난 번 벽돌기계를 구입해 온 것에 이어 이제는 건축설계를 의뢰하였습니다. 조만간에 건축 설계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팔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먼저 구입한 부지를 매각하여 나중에 구입한 부지에 건축을 하기로 결정하고 설계와 시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축 일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 5월 11일

주 안에서,
정도용, 장옥순 드림.